

“시즌 첫 승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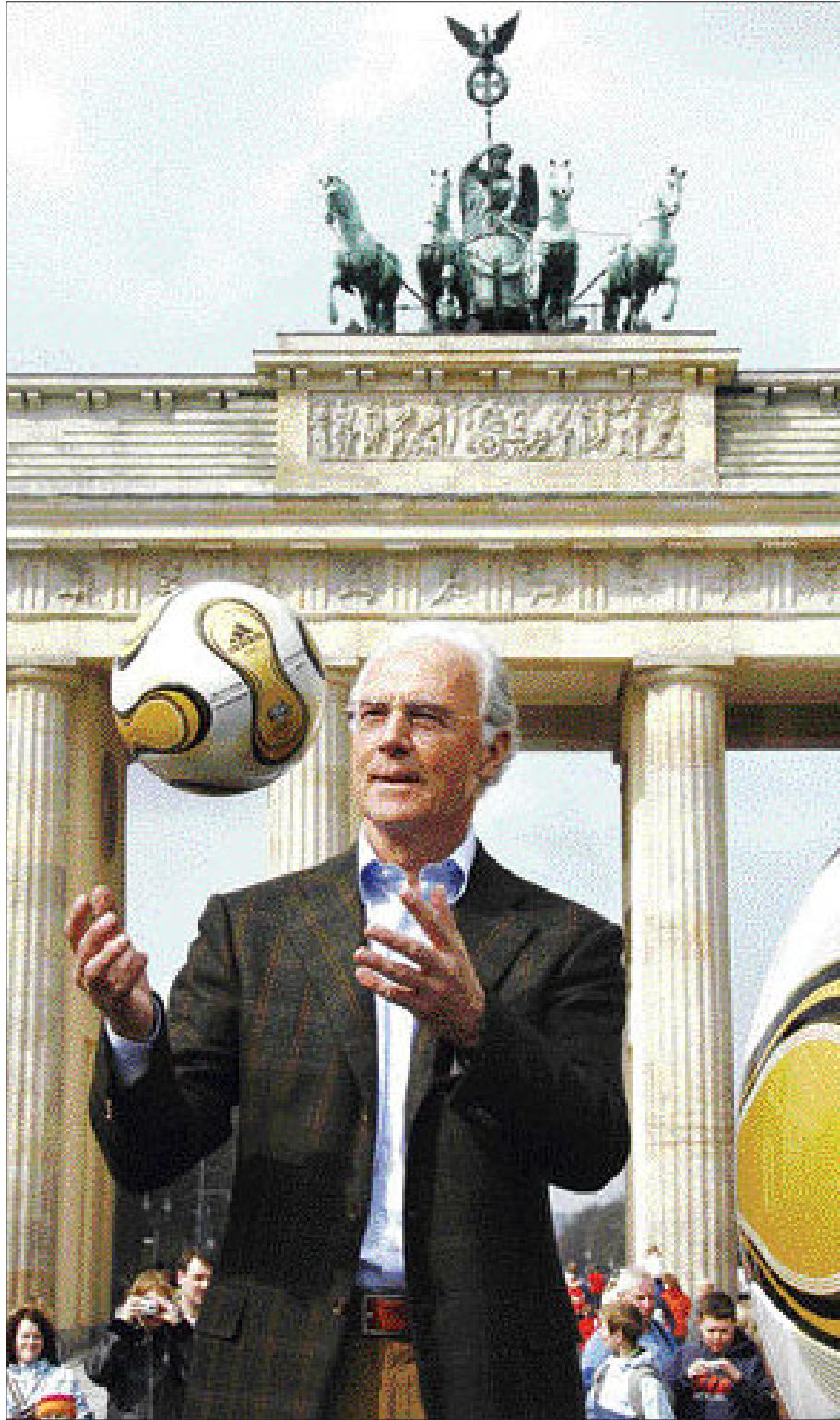
최경주, 20일 개막 셀휴스턴오픈 출전

귀국을 앞둔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가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최경주는 20일(한국시간) 오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 험블 레드스톤골프장 토너먼트코스(파72·7천457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셀휴스턴오픈에 출전한다. 최경주는 올해 들어 8차례 대회에서 톱 10 입상이 없지만 40만달러의 상금이 말해 주듯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 올리고 있는 중이다. 마스터스에서 컷오프된 이후 2주 쉬면서 피로도 풀고 샷 감각도 가다듬은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대회 장소가 최경주가 살고 있는 집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불과해 사실상 홈코스나 다름없는데다 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불참해 최경주의 우승을 기대할만하다. 세계랭킹 20위 이내 선수 가운데 비제이 싱(피지), 데이비드 톰스(미국) 등 단 2명 뿐이고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과 저스틴 레너드(미국), 마이크 위어(캐나다) 등이 우승 후보로 꼽히지만 최경주가 낯익지 못한 선수들은 아니다. J.B 홀스(미국),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 부바 왓슨(미국) 등 장타를 앞세운 ‘겉없는 신인’들도 경계해야겠지만 선수 구성이 대체로 고만고만하다.

최경주에게 희소식은 대회 코스가 종전 회원제 코스에서 퍼블릭코스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최경주는 2004년과 2005년 등 2년동안 중국에서 열리는 BMW아시아오픈에 나서느라 이 대회를 걸렀기에 다른 선수들에 비해 코스 숙지도가 낫다는 약점이 있었으나 코스 변경으로 이런 핸디캡도 사라졌고 오히려 골프장 인근에서 살고 있어 자주 접해봤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코스 설계 때 컨설턴트 역할을 맡았던 톰스가 기량도 뛰어나지만 코스 구성구석을 꿰고 있어 최경주의 첫 우승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나상우(22·코오롱)도 모처럼 최경주와 동반 출전한다.

/최재호 기자hion@kwangju.co.kr



독일월드컵 결승전용 ‘골든볼’ 공개

18일 2006 독일월드컵축구 조직위원회 프란츠 베헤너워 위원장이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월드컵 결승전을 위해 특수 제작된 ‘골든볼’을 공개했다. ‘팀 기아스트 베를린’으로 명명된 이 볼은 오는 7월10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독일월드컵 결승전 한 경기에만 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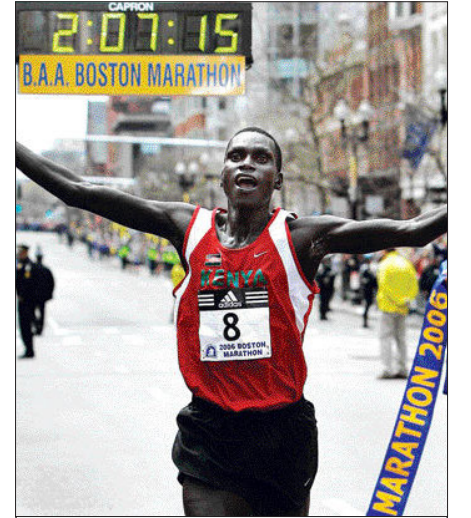
18일 AP통신이 보도했다. 호주 골프계의 ‘전설’이자 메릴린치스킨스 게임의 새로운 주최자가 된 노먼은 “여자들은 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남자들은 남자프로골프 투어에서 뛰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 노먼은 “소렌스탐이 원하는 선수와 경기를 하도록 해 주겠다. 누가 소렌스탐의 상대가 될 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렌스탐 나와라”

노먼, 스킨스 게임에 초청

남자프로골프대회에 여성 참가를 반대해 온 그렉 노먼(호주)이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을 스킨스 게임에 초청했다. 노먼은 11월10일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 티뷰론골프장에서 개막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릴린치스킨스 게임에 소렌스

탐을 초청한다고 밝혔다고 18일 AP통신이 보도했다. 호주 골프계의 ‘전설’이자 메릴린치스킨스 게임의 새로운 주최자가 된 노먼은 “여자들은 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남자들은 남자프로골프 투어에서 뛰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인물. 노먼은 “소렌스탐이 원하는 선수와 경기를 하도록 해 주겠다. 누가 소렌스탐의 상대가 될 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냐 체루이요트 보스턴마라톤 우승

케냐의 로버트 체루이요트(27)가 11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보스턴마라톤에서 코스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체루이요트는 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보스턴 시내 코스에서 열린 제110회 보스턴마라톤 남자부 42.195km 레이스에서 2시간7분14초에 결승선을 끊어 벤 마이오(케냐, 2시간8분21초)를 1분7초 차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2003년 대회 우승자인 체루이요트는 1994년 코스마스 은메달(케냐)이 수렴한 코스기록(2시간7분15초)을 12년 만에 1초 앞당겼다.

여자부 케냐 리타 엠피투 1위

상금 10만달러(9천541만원)와 기록 보너스 2만5천달러(2천385만원)를 쟁긴 체루이요트는 레이스 초반에는 2시간6분대 페이스로 달린 2위 마이오에게 뒤처졌으나 30km 지점인 뉴턴 커먼웰스 에비뉴에서 속도를 내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개인 최고기록(2시간8분59초)도 깨뜨린 체루이요트는 “언덕에서 달리는 걸 즐긴다. 오르막이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스턴마라톤은 레이스의 최대 고비인 ‘심장파열 언덕’을 비롯해 표고차가 심해 기록을 내기에 좋지 않은 코스다. 여자부에서도 케냐의 리타 엠피투(25)가 2시간23분38초로 엘레나 프로롭쿠카(라트비아, 2시간23분48초)를 힘겹게 따돌리고 우승했다.



이선화, 20일 개막 플로리다스챔피언십 출전

LPGA새내기 이선화(20·CJ)가 올해 6개 대회에서 준우승 세 차례에 상금랭킹 3위, 그리고 신인왕 레이스 포인트 1위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미야자토 아이(일본), 모건 프레셀, 브리타니 랭(이상 미국), 홀리에타 그라나다(파라과이), 루이제 스탈레(스웨덴) 등 초특급 대형 신인들이 줄줄이 LPGA 투어에 데뷔한 올해 그의 활약은 대형 투기들의 이목을 초라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LPGA 투어 판도를 흔들어놓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2월 필즈오픈에서 6타 앞선 채 최종 라운드에 나섰다

가 이미나(25·KTF)에게 연장을 허용한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나머지 두 차례 준우승 역시 조금만 더 힘을 냈으면 우승도 가능했다는 회한이 남기는 바는 마찬가지지만 필즈오픈 때 아쉬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선화는 지난 여섯 차례 대회에서 갈수록 챔피언의 꿈을 가깝게 다 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번의 컷오프도 없었고 20위 밖으로 밀려난 것도 세이프웨이클래식 때 단 한번이었다. 버디는 89개를 잡아내 LPGA 투어 전체 1위를 달리면서 박지은(27·나이키골프)과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등

쟁쟁한 선배들이 껴챘던 ‘버디퀸’ 타이틀도 일찌감치 예약했다. 지난 2월에 겨우 만 20세가 됐지만 14세 때 최연소 프로 테스트 합격과 2001년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고 2004년부터 2년간 LPGA 2부투어를 뛰면서 불은 관록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선화가 LPGA 투어 첫 우승컵을 노리고 출사표를 던진 대회는 20일 밤(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스톡브리지의 이글스랜드골프장(파72·6천394야드)에서 열리는 플로리다스 내추럴채리티챔피언십이다.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김주미(22·하이트맥주), 이미나 등 모두 29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한다.

/최재호 기자hion@kwangju.co.kr

당선확신!!

선거제도개선
 ● 선거제도, 선거법, 투표제도, 공직선거법, TV토론

한국정치지도자연수원

TEL 061-526-8523-4
TEL 017-803-8524

최첨단 시설이 겸비된 사무실을 저렴하게 빌려드립니다.

연주계별 빌딩 관리사무소 TEL 011-401-4000, 011-662-4000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담양한과

TEL 061-383-8283

삼보전기온플랜빌

삼우상사

TEL 07728-4747, 233-8267, 524-8267